

# 녹차서 찾은 유산균, 육제품 곰팡이 문제 해결

유해 곰팡이 성장 억제 효과 탁월, 육가공품 만들 때 위생관리 도움

선발 유산균, 항균 활성·항산화 등 유용한 활용 가능성 여럿 보유

농촌진흥청이 육가공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유산균을 발굴했다.

농촌진흥청(장장·권재현)은 녹차에서 분리한 '리티플로티비살피스 플란타를 지(G2 유산균)'는 유통·판매에 대한 항균 활성을 분석한 결과, 녹차에서 분리한 지(G2 유산균)이 이를 모두 억제했다.

또한, 지(G2 유산균)의 모든 유전정보를 분석해 항균물질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산균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고농도 소금, 낮은 pH, 저온)에서도 높은 생존 능력을 보였다.

지(G2 유산균)은 업체에서 제조한 유통·판매에 분무했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론지노에 비해 곰팡이 성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육가공품 제조 외에 다른 분야 활용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G2 유산균)은 빠른 성장 능

력이 있어 스타터 미생물이나 항생제 대체제, 사료 첨가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G2 유산균) 관련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술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을 통해 균주를 분양하고 활용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 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이번에 선발한 유산균은 육가공업체에서 제품 제조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유해 곰팡이나 식중독균 억제 능력이 뛰어나고 항산화 등 유익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육가공품 제조 외에 다른 분야 활용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시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서비스 우수성 알려

국민연금, ISSA 주관 아·태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시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주관으로, 아·태지역 32개국 58개 회원기관의 사회보장제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場)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연수 10년의 노력, 마침내 결실을 맺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강화' △'차세대 플랫폼 구축으로 중단 없는

4대 사회보험 업무 지원 및 국민편의 제고' 사례로 최우수상 3개를 비롯해 우수상 7개 등 역대 최다 우수사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일에는 최우수상 수상자 종합 나인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강화' 사례를 발표하여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기관과 사례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5일에는 '고령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사회보장제도 제택'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대부·수급자 공급여행·노후준비 상담서비스 등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농협중앙회, 전북농협 이정환 신임본부장 등 본부장급 인사 단행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에 김성훈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농협 전북본부 김영일 현 전북농협 본부장, 농협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이정환

김성훈



김영일

로 정평이 났다.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1970년 김제출생으로 상산고등학교 교와 전북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전북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

다. 김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농협 정주(정읍)지점 서기로 출발, 농협 김제시지부 과장, 농협공제보험 기획부 과장,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차장, 해외사무소 파견·신한은행 뉴욕지점(미국), 무주군지부 무주군청 출장소장,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장, 농협 전북영업본부 미케팅추진단장,

경영지원단장, 농협 진안군지부장, 농협은행 공공금융부 기관사업단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농협 내 재무통으로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현 김영일 농협 전북본부장은 농협손해보험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된다.

김 본부장은 전북본부장으로 2년간 재임 중 농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부단히 애써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그늘지고 어려운 곳을 찾아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전북본부장으로서 돌보이는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민호 기자

## 전북환경청, 2024년 그린스포츠 캠페인 전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8일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 흥경기에서 2024년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린스포츠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친환경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녹색기업협의회가 2014년 협

약을 체결하고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친환경생활 실천 동참을 주제로 다회용품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비점오염 저감 방안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축구경기가 진행되는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북환경청 누리소통망에서 함께 추진한다.

특히 12월 8일 전북현대모터스 흥경 기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람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실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선착순 입장권 300여명에게는 친환경 용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전북경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들의 근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지역 내 기업들에 모범 사례로 자리 잡으며, 지역 전반의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가족친화인증'은 ESG 경영 중 '사회(Social)' 요소를 강화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근로자의 일·가정 일체화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진흥원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진흥원은 가족친화적 복지 제도를 확대하며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왔다. 유연근무제 도입·출산·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 단축(유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혁신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한 결과 직원

/김옥기 기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